


“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” 2023 정부 업무보고

 <b>보도 자료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span>			
보도 일시	2023. 1. 12. (목) 11:00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.	배포 일시	2023. 1. 12. (목)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이종수 (042-481-4050)
		담당자	사무관 하지수 (042-481-4051)

**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**  
- 경제·환경·사회적 가치를 담은 ‘산림 르네상스’ 시대의 원년 -

- 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1.12.(목)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‘2023년 업무계획’을 발표했다.
- 올해 산림청은 ‘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’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.
  - 중점과제로는 ①산불, 산사태,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②목재 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③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④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⑤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.
-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%(32백만 톤)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'23~'30년에 11.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·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.
  -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①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.9백만 톤(74.7%) ②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(0.3%) ③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.5백만 톤(4.7%) ④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.5백만 톤(4.7%) ⑤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(REDD+)로 5백만 톤(15.7%) 확보 등이다.
-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.
  - 급경사지(행안부), 도로 비탈면(국토부)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(2월)한다.
  -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(「산림자원법」 개정).

-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,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‘숲경영체험림’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.
  -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(1월) 매입 면적도 확대(371ha→3,700ha)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.
-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.
-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(총 849km 중 316km)을 조성한다.
  - 난·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‘난대수목원’을 '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.
  - 생활 속 원예(홈가드닝)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(클리닉)을 운영한다(6월).
  -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, 정보 통신 기술(ICT)을 접목한 지능형(스마트)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.
-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
- '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.9%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 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.
  -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(3만 명, 9만ha)를 보상하는 ‘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’ 도입을 추진한다.
  - 지역주민 강제 대피,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「산림재난방지법」을 제정한다.
  -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,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「임업진흥법」을 「사유림경영법」으로 전면 개편한다.
  -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(ODA) 국가를 확대 하고(2개국),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.
  - 양도세,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.
- 남성현 산림청장은 “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 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”라며, “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”라고 말했다.

